

지식 생산의 탁월한 편집자

‘출판공로상’ 편집·기획부문 수상한 김갑수씨

“편집자는 ‘지식인’의 역할과 ‘샐러리맨’의 면모를 동시에 갖춘 전문인입니다. 편집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독자수준을 따라잡기 힘들죠. 무엇보다 편집자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수씨.

“행운이지요. 회사에서 좋은 책 만드는 기회를 줬고,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 기분이 좋군요.”

지난 10월 11일 ‘책의 날’에 편집·기획 부문에서 한국 출판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출판공로상’을 수상한 김갑수씨(38, 웅진출판 단행본 편집부장)의 소감이다.

올해로 웅진출판사에 13년째 기획·편집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김씨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국내 최초의 아동용 환경생태 잡지 《까치》와 국내 동식물의 생태를 상세하게 수록한 《한국의 자연탐험》(전80권)이 “아동들에게 자연 및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가운데 《한국의 자연탐험》은 5년 반이나 걸려 완간한 역작이라고 자랑한다.

“기획 당시만 해도 동식물의 라이프사이클을 제대로 다룬 책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모두 일본 책이었죠. ‘가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가재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국내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부할 성질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위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 책만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점입니다.”

고군분투로 완간된 《한국의...》는 그에게 편집자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게 했다고 전한다. 지금까지 김씨의 손을 거쳐간 책은 《어린이 마을》(전24권) 등의 전집류를 비롯, 유아용 교양 월간지 및 국교생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많은 책을 기획 편집해온 김씨는 “지식인의 역할과 샐러리맨 사이에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편집자의 자세”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편집자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 생산자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이 워낙 협소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독자 수준을 따라잡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로선 구조조정기(불황)의 뒤끝을 잘 읽는 것과 저자 발굴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편집자가 된 이후부터 생활을 잊고 살았지만 어느 직업보다 성취감이 크다고 말하는 김씨. 그는 또 시인, 음악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 89년에 《세월의 거지》(문학과지성사)라는 시집을 발표했으며, “나의 삶이 시인으로 정리되길 바란다”고 얘기할 정도로 시에 대한 애정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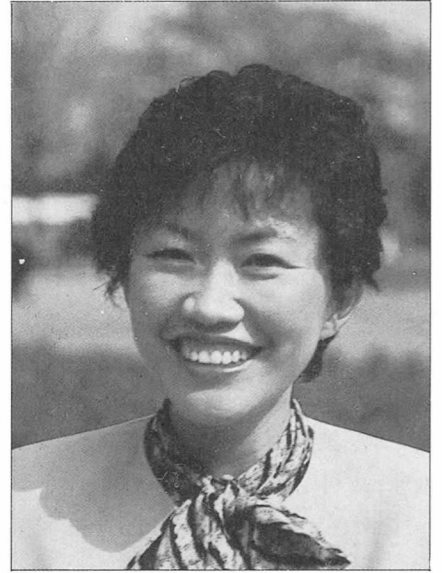
“편집자로서의 삶은 ‘생존의 방패’이고, 시는 ‘실존의 방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두 가지의 방패를 동시에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충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편집자는 그 어느 것도 아닌 ‘금지’로 사는 것 아닌지요?”

—배은희 기자

“책은 잘 사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독서진흥상 개인상 받은 이은애씨

“혼자 읽기 아까운 좋은 책들이 사장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곡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책을 세상에 알리는 매체 종사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애씨.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형태론든 활자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부라도 들여다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제2회 독서진흥상 개인부문상을 수상한 이은애씨(40, 소아과 의사)가 삶의 형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독서다. 자신의 책상머리에 ‘독만권서 파만리파(讀萬卷書 破萬里波)’라는 말을 써붙여 놓고 있을 정도이다. “만권의 책을 읽으면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원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씨가 조영선의 에세이 《남자는요 여자가요》를 읽다가 발견한 귀절이다.

청주에서 소아과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이씨는 1992년부터 청주 MBC 라디오에 출연, 책소개를 해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여성신문》에 ‘부모와 자녀를 위한 책’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번에 수상자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책 기증에 있다. 그는 13년간 개업의로 있으면서 접한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거나 직접 기증해왔으며, 국민학교에도 오랫동안 책을 기증해왔다.

“저는 책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자기가 소장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씨는 특히 삶과 밀착된 주제를 담고 있는 에세이나 교육관련서, 아동서 등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국내 독서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의 고급 독자이기도 하다.

“이른바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유명세를 타고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는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책이 많습니다. 반면에 혼자 읽기 아까운 좋은 책들은 재판도 찍어보지 못한 채 사장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시각이 성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세상에 알리는 매체 종사자들이나 평론가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방송이나 칼럼 등을 통해 소개하는 책들은 주로 삶의 향기가 가득차 있는 편안한 책들이다. 요즘은 주변사람들에게 그가 권하는 책은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푸른숲), 《인생을 긍정하라》(안산미디어), 《맹꽁이 서당》(웅진) 등이다. 바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는 게 원칙이다.

요즈음엔 그가 오랫동안 써온 책에 관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 위해 출판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기발하고 충격적인 원고에만 눈독을 들이는 출판계의 분위기로 보아 그의 작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지만 ‘책을 권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그의 의지는 분명하다.

—허연 기자